

# '단수사태' 혼란에도 광주시 공색한 변명만

## "시설 노후화 탓"…2만8000여 세대 직접 피해 홍보·설명 부족에 큰 혼란…대시민 사과없어

갑작스러운 단수 예고에 휴일 광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단수 전후 미흡한 대처로 시민 불편과 혼란이 지속했다는 비판에도 광주시는 대시민 사과없이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시설 노후화 탓'이라는 점만을 부각하는 등 공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 ◇ 덕남정수장 시설 밸브 고장

13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수도물 생산시설은 동북댐과 주암댐 등 수원지 4곳과 취수장 4곳, 정수장 3곳이 있다. 정수장 3곳 중 각화정수장은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폐쇄됐다. 현재는 급수인구가 88만 명인 동구 용연정수장과 58만 명에게 수도물을 공급하는 남구 덕남정수장 등 2개의 정수장만 운용하고 있다. 용연정수장의 생산용량은 일일 최대 30만, 덕남정수장은 44만이다. 150만 광주시민의 일일 최대 물 이용량은 53만 안팎이다. 급수시설은 가압장 39개, 정수장으로 부터 물을 공급받아 각 가정에 전달하는 배수지 18개가 있다.

이중 덕남정수장 유출밸브가 전날 오전 3시30분께 고장났다. 이로 인해 정수장 외부로 수도물이 흘러 넘쳤다. 유출된 수도물은 5만7000여 t으로 추정하고 있다.

### ◇ 고장 8시간 만에 단수 안내 문자

광주시는 전날 오전 11시42분께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구·남구·광산구 일대 단수를 예고했다. 오전 이른 시간대 복구작업을 시작하고도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복구 예상 시각이 지연되자 그 때서야 단수 예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갑작스런 통보에 시민들은 당혹감 속 각종 용기에 급히 물을 받아놓는가 하면 설거지나 세탁에 나서는 등 단수에 대비했다. 식당이나 카페·목욕탕 등 일반 가

정 대비 물 사용량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단수 예고 문자메시지에 큰 불편을 겪었다. 광산구 한 식당은 단수 소식이 저녁 영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결국 포기했다. 서구 한 대형 브런치 카페는 단수 소식 이후 손님을 받지 않았다. 남구 주월동 한 목욕탕에는 '단수가 예고됐는데 영업을 하느냐'는 문의전화 가 빗발쳤다.

서구 벽진동 주민 박모(33)씨는 "단수 소식을 좀더 일찍 알려줬어야 했다. 1시간여 전에 알려주는 것은 너무하다. 외출 중 급히 귀가한 이웃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단수 예고에 따른 큰 혼란이 이어졌지만, 이후 몇시간 동안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는 별도의 안내는 없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사 전 밸브를 고치는 데 2~3시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복구가 지연되면서 (광주시에)단수 안내 문자 발송 협조를 요청했다. 고의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 2만8000여 세대 단수 피해

단수 예고 뒤 남구 양과동·행암동·진월동과 광산구 송정동·소촌동·산정동·선암동·선운동·운수동·매산동·삼도동·비야동·여룡동·우산동·월곡동·임곡동·평동·월전동·동곡동·연산동·지족동 일대 급수가 실제 중단됐다.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고장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은 배수지는 전체 18개 배수지 중 소촌·송정·덕남 배수지 3곳이다.

광주시는 전날 오후 늦은 시각 이 배수지를 통해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한 가구 수와 주민은 5만5000여 세대 20여 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지난 이날 오전 5만5000여 세대가 아닌 2만8000여 세대가 단수의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내 대형저수조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단수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주암댐 물을 사용하는 덕남정수장



12일 오후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에서 밸브 고장으로 인한 수도물 범람 사고가 발생해 정수장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은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배수지 5곳(송하·봉산·소촌·송정·덕남)으로 정수장의 수도물을 흘려보낸다. 배수지 5곳은 서구·남구·광산구 주민들에게 수도물을 공급한다.

유출밸브 복구가 지연되자 상수도사업본부는 수계조절에 나섰다. 용연정수장의 수도물을 송하·봉산배수지 공급 지역으로 흘려보내 해당 지역 내 단수를 예방했다. 그러나 용연정수장과 거리가 먼 나머지 3곳의 배수지 공급 지역에는 수도물을 공급하지 못한 채 결국 단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당초 안내 문자로 예고했던 서구·남구·광산구 지역 전체가 아닌 남구와 광산구 일부 지역만 수도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 과정 또한 홍보가 부족, 시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단수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등을 알지못해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서구 모 아파트 주민 윤모(53·여)씨는 "오후 1시부터 단수 조치가 시행된다고 했는데 이후 시간에도 수도물 사용에 지장이 없었다"며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 욕조 등에 물을 받아놓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했다. 대시민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고 말했다. 단수 통보에 전날 하루 317건의 민원이 광주시에 접수됐다.

### ◇ 시설노후화가 원인…수도물 공급 정상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남구 행암동·임암동(총정 1·2지구) 일대를 마지막으로 광주 도시 내 수도물 공급이 정

상화됐다. 당초 이날 0시 1분부터 광주시 전역 수도물 공급이 정상화 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일부 배수지에 물이 들어치는 속도에 차이가 나 급수 지연이 발생했다.

다만 단수가 발생한 일부 가구에서 '물이 탁하다' '이물질이 있는 것 같다' 등 관련 민원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994년 설치한 유출밸브가 고장나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 강기정 시장 "안타깝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각 배수지 수위를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시까지 물공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오전 11시까지 유출밸브 수동개방이 이뤄질 경우 단수조치없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복구가 지연돼 11시40분께 단수 안내를 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단수세대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5층 기자실을 찾아 "단수와 흐린 물 출수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안타깝다"며 "유사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으로 사과를 대신했다.

광주시는 수도물 피해보상심의회를 통해 보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 해양경찰교육원, 생명 나눔 실천 단체 헌혈 동참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10일 교육원 내 학생회관 광장에서 '생명 나눔 실천 헌혈행사'에 단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강진소방, 음식점 화재예방 간담회 개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최근 한국의식업중앙회 강진지부 관계자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담양소방, 겨울철 방학기간 청소년 이용시설 화재안전 강화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겨울철 방학기간 내 청년, 아동 이용시설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여수소방, 화재 취약계층 및 난방용품 사용에 대한 화재안전교육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나홀로 아동 화재안전교육 및 화목보일러, 난로 등 비치 가정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광양소방, 골든타임 확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시험운영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13일 10시와 15시 두 차례에 걸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본격 도입을 위한 시험 운영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 나주경찰, 빛가람동 이통장협의회장 교통안전 교육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10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빛가람동장 및 동장단 5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 광주 택시 기본요금 인상 기자회견

최진영 광주지역플랫폼택시노동조합 의장이 1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지역 5개 택시 산업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스마트워치' 자르고 옛 연인 납치

### 납치·감금한 혐의, 2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데이트 폭력을 신고한 옛 연인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까지 훼손하며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친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A씨의 전 애인인 C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당일 오전 1시50분께 두고 온 집을 빠져 가겠다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C씨 집을 찾아가고, C씨를 B씨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끌고 가둔 뒤 40분 가량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10일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납치 과정에서 C씨가 경찰로부터 지급 받아 차고 있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도) 가위로 잘라 인근 하단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

다. 당시 C씨를 비롯해 이웃 주민들로부터 복수의 신고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인근 관악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1시간 여 만인 오전 2시46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도로에서 B씨와 C씨를 확보했고, 달아난 A씨도 30여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훼손한 것과 관련,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범원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다.

한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마약 혐의도 수사 중이다. C씨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양측을 상대로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뉴시스